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가온 다솜

2018. SUMMER



가을 다방

CONTENTS 2018. SUMMER



기관소개 및 보호자인터뷰	03	삶의 노래	12
실로암 소식	04	아름다운 손길(자원봉사자 소개)	13
프로그램 스케치	08	실로암 칼럼	14
직원 및 입소자 교육	11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15

기관소개

- 대표 박지훈 원장
- 설립일 2010년 7월 19일
-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법인대표 김선태 목사
- 이용정원 30명
- 이용현원 28명
- 직원정원 29명
- 직원현원 29명



보호자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순희 어르신(76세 | 2015년 2월 13일 입소)
아들 채용병입니다.



처음 이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 요양원이라 는 사회적 이미지와 대중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왔던 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곳에 와보니 시설의 청결함과 규모, 입소자분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 때문에 좋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머님은 아들마음이 불편할까봐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십니다. 어머님이 남에 대한 배려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본인의 언행으로 인해 주변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주변분들의 시선에 대해 항상 많이 신경 쓰십니다. 어머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주변분들에게 신경을 조금만 덜 쓰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님께서 육류를 잘 못 드시는데, 영양을 위해서라도 균형 있게 식단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신지 3년이 되시는데, 아는 지 인분이 있어 들어오시긴 했지만 먼저 저세상으로 가시

는 것을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입소하신지 3년이 되었지만, 지인 분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머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몸도 이곳저곳 안 좋으시는 부분들이 많아지시는데 이곳이 의료시설이 아닌, 거주시설이다보니 건강관리에 더욱 체계적이고 어르신들도 더 본인 건강관리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이곳에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요양원 본관건물을 추가로 증축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기, 소방 등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돋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입소자분들을 항상 가족처럼 봐주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로암 소식

 제 5회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참가


화창한 6월의 햇살아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용산 효창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홀라후프, 줄다리기, 팔씨름 등의 경기가 펼쳐졌으며 다양한 체험활동도 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요양원에서는 입소자, 종사자 총 30명이 참가하셨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지정규 어르신이 홀라후프 경기에 참가 하였으며 아쉽게도 올해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시설 생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예배



4월 1일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의 인도로 부활절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사장님의 성찬집례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 번 기억하는 시간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받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김선태 목사님께서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전해주었습니다. 항상 요양원 어르신들을 배려해주시는 김선태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실로암요양원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해서 그런지 입소자분들과 어울리며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마장저수지로 이동하여 즐겁게 산책을 하였으며 따뜻한 햇살과 살랑 살랑 바람에 꽃잎이 조금씩 날려 입소자분들의 머리 위에 앉아 봄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장 현대옥 회장님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방문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큰절과 함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곰두리어린이집 원생들도 방문하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어르신들에게 축하의 노래를 불러드렸으며,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어르신들 가슴에 걸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행사 후 외식과 함께 풍요롭고 의미 있는 어버이날 행사가 되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거신투표



6월 7일 실로암요양원 신관 4층 강당에서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참관으로 6.13지방선거 거신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입소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 투표로 인해 우리 입소자분들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1박 2일 체험캠프



5월 24일~25일 중증 장애인 입소자들과 1박 2일 체험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율동공원은 경치가 아름답고 입소자들이 산책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용인자연휴양림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산림욕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느끼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야외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굽고 이야기도 나누는 즐거운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세 번째 코스로 에버랜드 놀이기구를 체험하며 주변 환경과 퍼레이드를 관람하면서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박 2일 체험캠프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스케치

야외나들이 월 1회



6월 19일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가족공원과 용산전쟁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공원에 앉아 맛있는 맞춤도시락으로 가족소풍의 분위기와 함께 전쟁기념관의 전시물 관람 및 주변 산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초여름 날씨였지만 시원한 바람 아래 야외나들이를 하기에는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추억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건강산책 월 2회



6월 29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광릉 국립수목원으로 건강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자연이 자연답게 살아 숨 쉬는 수목원에서 시원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볕이 어우러져 어르신들이 산책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울창한 숲 속으로 이루어진 산책길을 따라 산책뿐만 아니라 산림욕까지 즐김으로써 기분이 전환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치아대회 연 1회



6월 22일 양주시문화회관에서 제8회 양주시장배 장애인 보치아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소 휠체어프로정을 통해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 보치아 종목의 결실을 맺는 자리였습니다. 1승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입소자분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미용서비스 월 3회



매월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주시는 최귀남 자원봉사자님이 입소자들을 위해 월 1회 방문하여 커트를 진행해 주고 있으며 월 2회 담당직원이 입소자들의 미용을 위해 천연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껏 예쁘고 젊어진 모습에 만족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미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미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생일잔치

월 1회



생일을 맞으신 입소자들을 축하해드리는 생일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날 축하송과 함께 케이절단, 축하선물, 동료 입소자 및 직원의 축하메시지 등과 함께 맛 있는 간식도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리교실

월 1회



매월 입소자분들이 직접 만들고 드시는 요리교실. 이번달은 김밥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었던 옛 추억을 회상하며 정성스럽게 한줄한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옆구리가 터지고,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께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 그 어느 김밥보다 맛음직하며 맛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체험

월 4회



현장체험으로 외식, 피복구입, 마트장보기, 세탁소, 우체국 및 은행 이용, 겨울에는 운천욕까지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통해 입소자들의 욕구 충족 및 요양원 생활에 활기를 더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나눔교실

월 2회



지난 한 주간 핫이슈가 되었던 기사낭독을 시작으로 문화정보나눔교실이 시작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독서 욕구 충족과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고 사회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접하고 낭독 후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는 공감의 장이 마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 및 입소자 교육



장애인유형의 이해

다양한 장애유형의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서 각 장애종류별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립생활 감수성 교육

자립생활과 탈 시설화의 시대 흐름에 따라 자립생활 감수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자립개념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형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소자 인권교육

입소자의 인권 뿐 아니라 입소자와 종사자간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요양원 전체 인권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며 입소자 차별에 대한 대처 방법 및 장애인의 인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방합동훈련

양주소방서와 연계하여 합동 소방훈련 및 응급처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소자분들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요양원 앞마당으로 대피하였으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 훈련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훈련을 마친 후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여 이론 및 실기를 익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노래

입소자 김인경 어르신
80세 | 2013년 10월 입소

안녕하세요?

김인경라고 합니다.

80년 세월 뒤돌아보면 회한이 많습니다. 앞을 못 보던 나를 부모님이 밥이라도 벌어먹으라고 가르친 게 역술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총기가 있어서 뭐든지 잘 외웠던 저는 스승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음양오행을 풀어서 사람들의 신수를 봐주는 일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앞을 못 보는 나와 살겠다는 눈뜬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 딸 둘 4남매를 낳고 남편의 외조 덕분에 어린 애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상처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돈도 좀 모아서 이제는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다 싶던 차에 내 나이 예순들이 되던 해에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창 나인데, 그렇게 곁을 떠난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길로 10년 세월을 자녀들에 의지하여 살다가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점을 지우는 것 같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처럼 먼저 입소한 친구가 있는 이곳

실로암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이 좋았습니다. 평생 점을 하면서 살아온 내게 인사를 하라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곳에 온 것이 편안했다는 얘깁니다.

건강관리와 더불어 입소자 각자에게 맞는 식단관리 까지 단체생활이어서 다소 불편할 것 같은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료함을 달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늘 나들이를 했었는데, 이곳에서 산책부터 시작하여 나들이가 매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 바랄 것이 있다면 4남매와 손자, 손녀들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고 나 또한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더욱 바라는 것은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과 서로 정을 쌓으며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손길

자원봉사자 소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를 그만두고 올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면서 좋기도 했지만 무기력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센터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교류는 있었지만 목표가 없는 삶에 지겨움이 조금씩 다가 올 때 다른 방식의 만남이 필요 했습니다.

~민경아 너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다며

함께 자원봉사 동아리 하자!

~자원봉사 동아리 한번 해볼까!

센터 친구들과 실로암요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 처음 실로암요양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갈래”했는데 막상 가보니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불편한 표정을 보이면 그분들이 불편해 할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내심 낯설고 겁이 났습니다. 머릿속에는 빨리 청소나 도와주고 집에 가야지 했는데 방문하는 방마다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면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쓰레기통을 옮겨 주시고 사탕이라도 손에 쥐여 주시는 모습이 뭉클뭉클했습니다.

저의 1:1 미션 휠체어에 탄 할머니와 산책하기, 말은 하지 못하셨지만 내가 뭐라고 하면 미소로 답해주셨습니다. 할머니 미

양주시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 최민경 | 19세

소는 “백만 불짜리” 하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혹시라도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양원에서 캠핑장까지의 산책 그리고 캠핑장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꿀맛이었습니다. 천천히 산책길을 내려오면서 “어느 학교에서 왔어.”라고 했을 때 - “양주시 학교밖센터요. 학교하고 비슷한데 자율적이라 학교 보다 더 좋아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셨을까 “미소 짓는 할머니” 할머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장애가 있으면서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웠는데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실로암요양원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될 거야 하는 선입견이 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려고 간 것인데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육체적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들의 장점을 배우고 도움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고 내 맘속에 있는 “마음의 벽” 허물고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노래 연습을 많이 해서 이번 겨울에 멋진 공연 보여 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꼭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로암 칼럼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미래가 있는 눈을 앞에서 봅니다,

양아치 같은 남자 만나 쌍둥이 낳고 살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에다 방광까지 없습니다. 인슐린 세 번 주사합니다. 식후 혈당 보통 300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술 만 마시면 두들겨 패는 남편을 피해서 살던 여인숙에서 도망 나와 어느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그동안 쌍둥이 아들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답니다. 가끔 술 마시고 이곳에까지 찾아와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남편은 제게 여러 번 혼나고 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열심히 운동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겠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보고 손자손녀들도 보고 싶답니다.

한 많은 세월의 애길 들어보면 고아로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미래가 생겼습니다.

127세(성서에 나오는 사라)까지 살다가 천국가자고 했더니 제일 큰 소리로 ‘아멘!’ 이랍니다.

그 남편이 지난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해체되면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계속 거부했고, 남편도 저에게 혼난 이후론 괴롭히지 않고 다일 공동체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마음을 잡고 잘 지냈는데 암세포가 온 몸으로 전이 되어 폐렴으로 세상

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곳 원장님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문상을 간 우리를 붙들고 다일공동체 원장님이 그립니다.

“이곳 노숙인들의 죽음은 눈물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요. 연락을 해도 가족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호씨는 참 행복합니다. 부인이 있지요. 아들들도 아버지를 용서를 못한다고 했지만, 의식이 있을 때 와서 용서하고 세 식구가 임종을 지켰습니다. 시체를 붙들고 세 식구가 서럽게 우는데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 다일공동체(다일천사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상객도 처음이고요”

저도 아버지 주검을 붙들고 눈물로 용서를 했지만, 그건 나의 일방적인 용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용서를 못 받고 가셨으니까요?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십 시오. 먼 길 가면 용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요양원 김무경 원목

후원모금(경차구입)

(단위: 원)		
물품명	사용목적	가격
차량(경차)	입소자 외래진료 및 프로그램 운영	10,000,000
입소자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4~6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세입	세출	
비지정후원금	14,229,300	사무비
지정후원금	-	재산조성비
기타	6,708	사업비
계	14,236,008	계
		10,680,417

자원봉사자와 후원자(4월~6월)

자원봉사자 (2018년 4월~6월)	후원자(2018년 4월~6월)
<p>단체 (사)대한안마사협회, 국민은행 양주테크노지점,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소풍,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아워홈, 양주연화푸드마켓,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해피빈</p> <p>무지개호스피스, 아이노스양상블, jj church, 반야월예술단, 26사단,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신입직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더케이손해보험, 최귀남</p>	<p>단체 강승지, 강영순, 국미혜, 권영진, 권창오, 김경민, 김광훈, 김광희, 김동희, 김달년, 김무경, 김미경, 김미영, 김미정, 김병준, 김병숙, 김선태, 김선호, 김영선, 김영준, 김은해, 김은철, 김은희, 김인자, 김정현, 김주리, 김태연, 김태웅, 김태용, 김태호, 김현정, 김형도, 김혜욱, 김호직, 남성우, 노성은, 노현지, 도윤희, 박성일, 박은애, 박인수, 박정훈, 박지연, 박지훈, 박현우, 박희범, 박기령, 서동균, 신동선, 신혜경, 양민정, 양새롬, 엄현희, 오승환, 오지선, 우명수, 유흥진, 윤나라, 윤동현, 윤보라, 윤지현, 윤찬호, 은소록, 이강일, 이광열, 이금선, 이미경, 이범준, 이보람, 이봉희, 이상기, 이성규, 이세종, 이순희, 이승옥, 이영태, 이윤규, 이윤희, 이재영, 이지선, 이진용, 이혜숙, 이혜욱, 이혜지, 임국화, 임기돈, 임준규, 장혜승, 전예리, 전정희, 전현출, 정구연, 정은경, 정지혜, 정혜미, 조경조, 조미경, 조봉래, 조영순, 조지연, 지정규, 차대숙, 채민형, 채수광, 최도영, 최동익, 최문옥, 최성환, 최영훈, 최요신, 최혁진, 하은주, 한승진, 한재근, 한주희,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허은수</p>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요양원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증·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밀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외부활동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전문봉사활동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치료봉사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아름다운 손과 발은 있으나 눈이 없는 꽃들을 본적이 있는가.

어느 누가 이 꽃들을 가련하다 할 수 있을까?

세월을 거슬러 온 꽃보다 진한 향내가 지금도 흘날리고 있는데....

이름 모를 꽃들이 만개하는 이때에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니!

다만 그 이름을 불려줄 이들이 없었을 뿐!

마음의 눈을 열고 그대들을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어보라!

실로암은 시들지 않는 입소자분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